

“광주에 문화콘텐츠 개발자 일할 기업 많이 정착하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 콘텐츠 잡매칭데이' 가보니

취업연계과정 결과물 발표...수료생 등 120여명 12곳서 면담 5년간 취·창업률 41.8%...미래먹거리 산업 조성 여건 강화

광주에서 게임개발을 하고 싶은 이창민(32)씨는 서울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지만, 올해 초부터 고향 광주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에 도전해왔다.

문화콘텐츠 취업연계과정 결과물을 발표하고 수료생과 기업들이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날 '잡매칭 데이'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열었다.

그는 지난 6달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문화콘텐츠 취업연계과정'에서 알고리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 열린 '광주 콘텐츠 잡매칭 데이' 행사 연단에 섰다.

취업연계과정 수료생 100명과 취업준비생 등 총 120여 명이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문화콘텐츠 기업 12개사가 취업 상담 공간을 마련했다.

그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 실감 콘텐츠 기술이 결합한 '메타휴먼' 개발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구직자와 원하는 인재를 구하려는 기업 관계자 모두 진지하게 면접에 임했다.

이씨가 원하는 건 "광주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개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규모 있는' 기업들이 광주에 많이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기업에는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탄생시킨 네이버 웹툰 자회사 ㈜로커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안방극장을 중형무선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B패밀리'의 주역 스튜디오 더블유바바(주) 등 유망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년 동안 '문

'문화수도'를 내건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성이 지난 2010년 시작된 이후 10년 반월점을 넘겼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은 가속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펴낸 자료를 보면 전체 콘텐츠 산업 신규 구인은 지난해보다 69.6%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보통신업은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구인 증가율이 77.2%에 달해 전문 인력 수요가 특히 높았다.

이날 '잡매칭 데이'에 취업 상담에 나선 이대화 스튜디오 더블유바바(주) 프로듀서는 "수년 전만 해도 직접 지역 대학에 찾아가서 인력을 구할 정도"였으며 구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회사는 8년 전 광주에 동지를 둔 뒤 20여 명을 고용하고 지사를 세우는 등 광주지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프로듀서는 "올해 진흥원 취업연계과정을 통해 2명을 현지 채용할 수 있었다"며 "우리 회사는 상시 모집을 내걸 정도로 인력 구하기에 진심이지만 원하는 조건에 맞춘 인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기업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 인재양성팀을 신설하고, 종합 문화콘텐츠 기업 ㈜로커스와 손잡고

'문화콘텐츠 취업연계과정' (콘텐츠 테크하이어)을 새로 단장했다.

진흥원은 한 해 50명을 밑돌았던 취업연계과정 교육생을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100명 이상 모집·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문화콘텐츠 취업연계과정 교육생은 모두 445명으로, 수료율은 70.8%(315명)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생 가운데 취·창업에 성공한 인원은 186명으로, 그 비율은 절반 정도(41.8%)에 불과했다.

올해 취업연계과정(기본·심화)을 받은 126명 가운데 72.2%인 91명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 11월말 기준 31명이 취업하고 5명이 창업하며 교육 당해 연도 취·창업률이 28.6%로 집계됐다.

이의 진흥원은 산학연계과정인 '콘텐츠 아카데미'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1131명 문화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다.

탁용석 진흥원장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부족은 지역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지난 2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 문을 여는 등 미래 먹거리인 실감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할 여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대재해 정책 바뀐다 '처벌'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안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이 필수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에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2.6%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는 대폭 확대한다.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또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늘린다. /연합뉴스

도경건설 '도로 결빙방지 표면처리공법' 개발

러시아서 기술 이전, 국내 상황 맞게 연구·개발 상용화 성공 제설제 부작용 막고 경제성 우수...광주 제3순환도로 적용 신현국 대표이사 "선진 기술 전파로 세계적인 기업 되겠다"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결빙방지기술'이 상용화됐다.

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연구결과 사용성을 확인했다.

30일 도경건설에 따르면 미끄럼 방지 포장재에 결빙 방지제를 결합한 표면처리 공법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 해당 공법은 12월 개통할 예정인 광주 제3순환도로 일부 결빙 취약 구간에 적용됐다.

앞서 도경건설은 올해 5월 러시아 수입에 의존해왔던 결빙방지제 제품을 기술이전을 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장성에 관련 설비 및 공장을 구축하기도 했다.



된다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도경건설은 설명했다. 결빙방지 포장은 0도부터 영하 6도 사이에서 우수한 결빙방지 효과가 있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도로 위 살얼음

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영하 6도 이하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얼음과 눈이 얼어붙어 도로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작업이 쉽고 경제적인다는 장점을 갖췄을 뿐더러, 높은 제빙능력으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눈이 오면 도로 위에 뿌리는 제설제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데다, 그로 인한 차량의 금속 부식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열선포장에 비해 5배 이상 저렴해 도로 살얼음 방지기술로는 경제성 역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상습 결빙구간, 교량, 터널 진출입부 등을 비롯해 겨울철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마을도로 등 다양한 곳에도 적용 가능해 겨울철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현국 도경건설 대표이사는 "우리의 기술은 SOC 기술마켓과 혁신제품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인증도 마친 상태로, 결빙방지 관련 특허도 6건이 등록돼 지식재산권도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우리의 선진 기술을 해외에 전파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청소년 위생용품 기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광주은행 여성 직원 모임 개나리회(회장 최선영·왼쪽 두 번째)와 2000만원 상당 지역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꾸러미 '핑크박스' 100개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시, 올해의 우수 중소기업인·기술장 선정

광주시는 올해의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5명을, 기술장으로 4명을 선정해 이날 상패를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 중소기업인은 지역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2012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기술장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인 중 신기술 개발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인은 ▲㈜대웅에스엔티 강용선(64) 대표 ▲㈜진즈메드 김승희(47) 대표 ▲대평건설주식회사 노운선(65) 대표 ▲㈜삼호엔씨티 현형호(50) 대표 ▲동양하이테크산업㈜ 정기우(67) 대표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우수 중소기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이차차액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수출진흥자금 융자액 추가 지원, 지방세 세부조사 유예, 통상진흥사업 우대 지원 등 총 12종의 금융·세제·행정 혜택이 2년간 부여된다.

올해 기술장으로는 ▲㈜신흥정기 공세현(46) ▲디케이이중환(40) ▲고려정밀㈜임광원(48) ▲대영전자㈜ 정성현(41) 등 4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6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동근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선임

제8대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김동근 전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60·전남대 학술연구 교수·사진)이 선임됐다.



장을 역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30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는 지난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 전 단장을 제8대 상근부회장으로 의결, 선임했다.

이에 따라 신임 김 부회장은 오는 9일 취임식을 갖는다. 임기는 3년으로, 성과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신임 부회장은 전남대 금속공학과 학·석·박사를 졸업했으며, 광주 광산업 1호기업인 우리로광동신 연구소장을 지냈다. 또 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PD 및 단장, 초대 호남지역사업평가원장과 광주지역사업평가단

LH, 광주선운 임대 606호·영광단주 행복주택 3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선운2 공공임대주택 606호와 영광단주 행복주택 3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따라 22형(58호), 26A형(100호), 26B형(16호), 36형(42호), 44형(84호) 총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우선 광주선운2지구에는 총 606호 규모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혼합단지다. 유형별로 국민임대 447호(전용 29㎡, 36㎡, 44㎡), 영구임대 159호(26A㎡, 26B㎡·주거약자용 주택)로 구성돼 있다. 입주는 2024년 5월이다.

22형(58호)은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빌트인 가구와 냉고, 가스쿠팡 등이 제공된다. 26B형(16호)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욕실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영구임대 29B㎡ 일부 세대(33호)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거동이 불편한 세대를 위해 욕실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경우 서류를 지참해 19~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광구청 별관(구 영광읍사무소)을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청약접수는 국민임대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해 21일과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는 14일부터 22일까지 필요서류를 지참해 광주시 거주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광단주 행복주택은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92-1번지 일대에 조성, 총 300호 규모로 전용면적에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2.53(+39.14)
▲ 코스닥	729.54(+2.00)
↓ 금리(국고채 3년)	3.689(-0.034)
↓ 환율(USD)	1318.80(-7.80)